



8일 오후 광주 웨슈산 스타디움 (Yuexiu Stadium)에서 열린 한국-북한 아시안게임 예선 첫경기에서 북한 리광천이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대회 불운 베텔, 브라질 F1 우승

레드불 팀부문 우승 확정

제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이 국제자동차경기대회 포뮬러 원(F1) 브라질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다.

베텔은 8일(한국시간) 브라질 상카울루에서 열린 2010시즌 18라운드 경주에서 4309km의 서킷 71바퀴(총길이 30만5909km)를 1시간33분11초803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랭킹 포인트 25점을 보낸 베텔은 231점이 돼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 마크 웨버(호주·레드불)에 이어 3위를 지켰다.

알론소가 246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웨버가 238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222점의 4위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까지 산술적으로 종합 우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인 아랍에미리트(UAE) 경주는 14일 아부다비에서 열린다. 우승하면 25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두에 24점 뒤진 해밀턴도 시즌 챔피언 자리를 넘볼 수 있다.

지난달 24일 영암에서 열린 시즌 17라운



드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하고도 결선에서 레이싱 이상으로 페이스를 중도에 포기했던 베텔은 "여기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레이싱의) 정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며 기뻐했다.

이날 1, 2위를 휩쓴 레드불은 469점이 돼 2위 맥라렌(421점)을 제치고 남은 UAE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컨스터터틱(팀) 부문 우승을 확정 지었다. 레드불은 지난 시즌에는 브라온 GP에 이어 2위였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선수비-후역습' 北에 당했다



아시안게임
D-3

수적 우세 불구 '뺑 축구'... 수비벽에 막혀 0대1패
 금메달 전선 먹구름... 내일 오후 요르단과 2차전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의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북한과 첫 경기에서 무릎을 꿇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8일 중국 광저우 웨슈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36분 리광천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북한에 0-1로 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중 처음 치른 경기이자 첫 남북 대결이라 관심이 쏠렸지만 아쉬운 패배로 대회를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북한에 맞섰다. 최전방 공격수로 박희성(고려대)을 세우고 좌·우 미드필더에 김보경(오

이타)과 조영철(니가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김민우(사간 도스)를 배치했다.

와일드카드(24세 이상 선수)로 합류한 김정우(광주상무)가 주장 구자철(제주)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의 임무를 맡았고, 좌·우 풀백 윤석영(전남)과 오재석(수원), 중앙수비수 장석원(상남)과 김영권(FC도쿄)으로 포백 수비진을 꾸렸다. 골문은 김승규(울산)가 지켰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했던 A대표 10명이 엔트리에 포진한 북한은 이 중 박남철과 안철현, 리광천 등 6명을 선발로 내세웠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아크 정면에서 북한 김국진에게 기습적인 중거리슛을 내주며 가

슴을 쓸어내린 태극전사들은 전반 16분 조영철의 왼발 중거리슛으로 응수하는 등 팽팽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반 36분 북한의 프리킥 공격 때 일격을 당했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박남철이 프리킥을 차올리자 골 지역 오른쪽에서 안철현이 헤딩으로 떨어뜨렸고, 리광천이 골문 앞에서 다시 헤딩으로 받아 넣어 선제골을 뽑았다.

크로스 때 골키퍼 김승규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키를 넘기는 바람에 리광천은 빈 골문에 슈팅을 날릴 수 있었다.

홍 감독은 후반 시작하면서 김민우를 빼고 서정진(전북)을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뛰 서정진이 스

피드를 앞세워 북한 수비진을 흔들었지만, 결실은 보지 못했다.

후반 11분 김보경이 페널티지역 내 오른쪽을 파고들다 상대 수비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깜짝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북한 박남철이 후반 20분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기회를 맞았지만 이 또한 살리지 못했다. 수적 열세에 놓인 북한은 더욱 수비에 치중했다.

한국은 후반 28분 조영철을 불러들이고 스트라이커 지동원(전남)을, 33분 박희성을 되찾고자 총력을 퍼부었다. 그러나 슈팅은 번번이 수비벽에 막혔고, 경기 종료 직전 골 지역 왼쪽을 파고든 윤석영의 왼발슛도 골키퍼에게 걸리면서 결국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요르단과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걱정마” 골잡이 박주영 온다

시즌 3·4호골 작렬

홍명보호 승선

입은 듯 경기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박주영은 전반 13분 아크 왼쪽 외곽에서 37미터 가량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골포스트를 살짝 넘기는 날카로운 중거리로 골잡이로 돌아왔다.

이어 18분에는 동료 선수가 왼쪽에서 찰라넣은 크로스에 몸을 날리며 헤딩을 시도하는 등 공격 때마다 탁월한 위치 선정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돋보였다. 결정적인 기회는 남시의 연이은 자책골로 2-0으로 앞서가던 후반 37분에 찾아왔다. 오버메이팅이 오른쪽에서 찰라넣은 스투패스를 박주영이 골대 정면으로 헤딩하면서 왼발로 가볍게 킥차넣었고 공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볼과 5분 뒤인 후반 42분 하프라인 인근에서 오버메이팅이 띄워준 공을 페널티 지역 외곽 정면에서 받아 그대로 치고 들어간 박주영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정확하고 강하게 오른발로 때려넣었다. 이 골로 시즌 4호골을 기록한 박주영은 팀의 4-0 대승을 완성하고 광주주요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연합뉴스

www.geums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의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심야의FM
 상영현황: 평일 (1번 또는 2번) → 0번
 ☎ 1588-7941

상무점 | **클롬버스시네마** | 하남점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심야의FM(18세)	1관 기디언의 전설(3D)/월스트리트(12세)
2관 경우강호(15세)/데블(15세)	2관 부당거래(18세)
3관 부당거래(18세)	3관 불랑남녀(15세)
4관 부당거래(18세)	4관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12세)
5관 대지진(전제)	5관 돌이킬 수 없는(15세)
6관 가디언의 전설(전제)/나탈리(18세)	6관 심야의FM(18세)/소외계층여행하는법(15세)
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레드(15세)	7관 레드(15세)
8관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12세)	8관 부당거래(18세)
9관 돌이킬 수 없는(15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데블(15세)
10관 불랑남녀(15세)	10관 대지진(전제)

항토시영! 영화시영!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부당거래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0600

MEGABOX

M관 부당거래(18세)	최고급관
2관 불랑남녀(15세)	
3관 레드(15세)	
4관 돌이킬 수 없는(15세)	
5관 가디언의 전설(3D)(전제)	
6관 심야의FM(18세)	
7관 데블(15세)	
8관 불랑남녀(15세)	
9관 부당거래(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 정상요금 부과

불랑남녀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부당거래(18세)
2관 심야의FM(18세)
3관 데블(15세)
4관 불랑남녀(15세)
5관 레드(15세)
6관 월스트리트(12세)/나탈리(18세)
7관 가디언의 전설(전제)
8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co.kr
세니우스전대3D(4K)상영!!